

人文論叢

80권 4호

2023년 11월

일반 논문

[www.kci.go.kr](http://www.kci.go.kr)



# 인도-파키스탄 분단의 기억과 힌두 민족주의\*

박금표\*\*

이동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파키스탄 분단 기억의 정치적 활용, 분단참상추모일 제정과 분단 트라우마 치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분단, INC와 BJP가 제정한 기념일과 기념행사 분석,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이 분단 트라우마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분석으로, 분단 관련 자료와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뉴스를 분석했다.

분단 결정 이후 현재까지의 담론에서, 분단 요인으로 힌두-무슬림의 갈등과 무슬림연맹의 파키스탄 요구를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이 아니라 국회의원회와 무슬림연맹의 정치적 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의제의 도입이 두 단체의 갈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인도의 분단은 대의제를 도입한 영국식민지 정부, 소수인 무슬림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무슬림연맹 그리고 무슬림연맹의 우려를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국회의원회의의 합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INC 집권기에는 독립 투쟁, 국가 발전을 주요 키워드로 기념일을 제정했다. BJP 집권기에는 INC 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념일을 제정하고 분단참상추모일을 제정함으로써 힌두민족주의 정당으로서의 BJP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비록 기념일 제정의 키워드는 다르지만, 역사적 기억의 정치화를 통해 각 집권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양상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INC는 분단참상 기억을 외면했으나 BJP는 분단참상추모일을 제정했다. 이는 분단참상 트라우마 치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트라우마는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반성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진정성을 담고 있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37650).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조교수

는 추모일 제정이란, 파키스탄이나 INC를 닮기보다는 참상을 겪은 인도-파키스탄 쌍방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가 없는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은 치유보다는 오래된 상처를 악화시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념일, 기억, 분단, 분단참상추모일, 상처, 인도국민회의, 인도인민당, 치유

## 1. 서론

인도 현대사에서 분단과 그로 인한 참상은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현재를 움직이는 다양한 서사로 작용한다. 특히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2021년 8월 14일에 분단참상추모일(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Vibhajan Vibhishika Smriti Diwas)<sup>1</sup>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분단은 더 큰 화두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의 한 분기로서의 ‘분단’에 대한 이해, 분단 기억의 정치적 활용, 그리고 힌두민족주의 정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분단참상추모일을 제정한 의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분단 관련 기록, 연구, 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한 문헌 분석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분단에 관한 연구는 수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단참상추모일을 제정한 지 2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이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짜끄라바르티(Pallavi Chakravarty),<sup>2</sup> 비르디(Pippa

1 인도와 한국의 독립 후 상황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분단, 인도의 경우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분단과 분리에 대한 설명은 우르와쉬 부팔리아(2009), 이광수 역, 『침묵의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 부산: 산지니, p. 27 참조 요망.

2 Pallavi Chakravarty (2022), “Remembering a Date in the History of the Indian Subcontinent”, *Studies in History* 38(2), pp. 162-179.

Virdee),<sup>3</sup> 스벤슨(Ted Svensson)<sup>4</sup>의 논문이 발표된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는 물론 분단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도 선행연구로 참조하고자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단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해석을 다루고 있는 칸(Yasmin Khan)<sup>5</sup>의 연구, 분단 기억과 역사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판데이(Gyanendra Pandey)의 연구,<sup>6</sup> 남아시아 역사 변화와 기억의 관계를 고찰한 자민다르(Vazira Fazila-Yacoobali Zamindar)의 연구,<sup>7</sup> 방글라데시 탄생과 관련 기억을 다루고 있는 자카리아(Anam Zakaria)의 연구,<sup>8</sup> 분단의 기억과 그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까울(Suvir Kaul)의 편집서<sup>9</sup> 등과 같이 ‘분단과 기억’을 키워드로 삼은 연구를 참조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이은구,<sup>10</sup> 라제쉬,<sup>11</sup> 라즈 헤먼뜨,<sup>12</sup> 홍현애,<sup>13</sup> 또마르와 서

- 
- 3 Pippa Virdee (2022), "Histories and Memories in the Digital age of Partition Studies," *The Oral History Review* 49(2), pp. 328-345.
  - 4 Ted Svensson (2022), "Transcending Antagonism in South Asia: Advancing Agonistic Peace through the Partition Museum," *Peacebuilding* ahead-of-print, pp. 1-17.
  - 5 Yasmin Khan (2007), *The Great Partition: The Making of India and Pakistan*, Delhi: Penguin.
  - 6 Gyanendra Pandey (2003), *Remembering Partition: Violence, Nationalism and History in India*, New Delh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7 Vazira Fazila-Yacoobali Zamindar (2007), *The Long Partition and the Making of Modern South Asia: Refugees Boundaries Histories*, New Delhi: Penguin Viking.
  - 8 Anam Zakaria (2019) *1971: A People's History from Bangladesh, Pakistan and India*, Gurgaon: Vintage.
  - 9 Kaul Suvir (ed.) (2001), *The Partitions of Memory: The Afterlife of the Division of India*, Delhi: Permanent Black.
  - 10 이은구(2023), 「모한 라게쉬(Mohan Rakesh)의 분단소설 연구」, 『남아시아연구』 28(4), pp. 29-52.
  - 11 라제쉬(2023), 「식민 이후 한국과 인도의 분단 과정의 문학적 형상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라즈 헤먼뜨(2022), 「한국과 인도의 분단 소설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홍현애(2022), 「『인도의 분단』(Cracking India): 여성 서발턴의 해방의 가능성」, 『젠더와 사회』 33, pp. 5-28.

덕순,<sup>14</sup> 공영수,<sup>15</sup> 한재환,<sup>16</sup> 이광수,<sup>17</sup> 김우조<sup>18</sup> 등의 논문과 조길태의 연구서,<sup>19</sup> 부탈리아(Urvashi Butalia) 연구서를 번역한 이광수의 번역서<sup>20</sup> 등에서 분단을 다루고 있으며, 아직 분단참상추모일 관련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 분단 관련 기록 및 최근 뉴스에 등장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첫째,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 둘째,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 강요 및 정치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분단

인도는 언제 분단되었는가? 이 물음에는 1947년 8월 15일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함으로써 분단되었다고 간단히 답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는 왜 분단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이하 국민회의/INC)<sup>21</sup>가 1885년에 창립된 이래 1947년까지 가장 오랜 기간 의장을 맡은 사람은 무슬림인 아자드(Abul Kalam Azad)이다.

- 
- 14 서덕순·Anshuman Tomar(2021), 「인도 분단 소설에 나타난 비극의 양상 연구: 쿠쉬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8, pp. 139-172.
- 15 공영수(2021), 「1947년 인도 분단 속 뺨잡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선교적 함의」, 『ACTS 신학저널』 49, pp. 51-81.
- 16 한재환(2014), 「뱀시 시드와의 『인도의 분단』에 나타난 영국 제국주의 비판: 민족, 종교, 여성」, 『영미문화』 14(2), pp. 287-310.
- 17 이광수(2007), 「1947년 인도아대륙 분단과 '파키스탄 난민'의 정체성 변화」, 『역사비평』 81, pp. 338-363.
- 18 김우조(2005), 「기만잘리 슈리의 그 해의 우리 도시에 나타난 힌두-무슬림 갈등의 심리적 고착화의 확대」, 『남아시아연구』 11(1), pp. 59-96.
- 19 조길태(2009), 『인도와 파키스탄』, 민음사.
- 20 우르와쉬 부탈리아(2009).
- 21 Indian National Congress의 경우 독립 이전까지는 민족주의 단체로서 '국민회의'로 약칭하며 독립 이후 정당으로서 INC로 약칭한다.

아자드는 국민회의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로, 독립 이후 인도의 교육부장관(1947~1958년 재임)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 글에서 분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분할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견해는 대부분의 무슬림연맹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이며, 분단 이후 국민회의의 지도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분리 독립 이후 네루(Jawaharlal Nehru) 혹은 빠텔(Sardar Patel)과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그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주장도 이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분석이 옳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sup>22</sup>

인도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마운트배튼(Louis Mountbatten) 역시 “만약 인도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sup>23</sup> 요컨대 인도의 분단은 힌두와 무슬림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전-인도 무슬림연맹(All-India Muslim League, 이하 무슬림연맹)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독립 국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무슬림연맹은 무엇 때문에 인도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립하여 분리된 국가를 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sup>24</sup> 본 장에서는 힌두와 무슬림의 대립 구도가 형성

22 Abulkalam Azad (1959), *India Wins Freedom: An Autobiographical Narrative*, Bombay: Orient Longmans, p. 226.

23 Terraine Joh (1980), *The Life and Times of Lord Mountbatten*, London: Arrow Book, p. 148.

24 1940년대에 파키스탄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인도-파키스탄 분단의 주역이 된 진나(Mohammad Ali Jinnah)이지만 1920년대까지는 힌두-무슬림 단합을 강조하며 무슬림연맹 창립식(1906년)에 참가하지 않았다. 1913년에야 무슬림연맹에 가입하여 1916년 국

된 단초와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나누어 분단의 요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1.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 대립의 단초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이 대립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영국 정부가 인도에 대의제를 도입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영국 정부는 1892년 인도평의회법(Indian Councils Act 1892)에서 중앙입법위원회 위원 24명 가운데 5명을 인도인으로 임명한 데 이어 1909년 인도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 1909)에서는 선거제 규정함과 더불어 종교적 소수집단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슬림 분리선거권을 인정했다. 이것이 종교를 기반으로 선거권을 따로 부여한 최초의 선행이다. 1919년 인도통치법부터는 같은 이유로 시크교 분리선거권이 도입되었으며, 1935년 통치법 개정 논의에서도 종교, 카스트에 기반한 분리선거권 요구가 갈등과 대립의 쟁점이 되었다. 국민회의는 분리선거제 폐지를 주장하고 무슬림연맹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분리선거권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슬림 정치인들은 힌두 정치인들과 화합을 이룰 희망을 잃었고, 1937년 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국민회의는 무슬림연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컨대 1900년대 초부터 독립 시점까지 무슬림 전체가 위협을 느꼈다가보다는 대의제 도입으로 힌두 정치인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인 무슬림 정치인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단 요인으로 거론되는 ‘두 국가 이론’(Two-nation theory)의

---

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러크나우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선언에 대하여 ‘두 단체가 충심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현존하는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힌두와 무슬림이 협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금표(2015), 『간디와 맞선 사람들』, 그린비, pp. 245-249 참조 요망.

등장 역시 힌두와 무슬림 갈등과 궤를 같이 한다. 1870년대에 무슬림 부흥 운동을 주도한 사이에드 아흐메드 칸(Syed Ahmed Khan)<sup>25</sup>의 알리가르 운동(Aligarh Movement)을 두 국가 이론의 기초로 보기도 하지만 두 국가 이론이 구체화된 시기는 1930년대이다. 1930년에 무슬림연맹 의장이 된 이끄발(Allama Mohammad Iqbal)은 “뽀잡(Punjab), 서북변경주(North-West Frontier Province), 쥘드(Sind), 발루치스탄(Baluchistan)은 하나의 주(州)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국 지배하의 자치령에서든 영국 제국이 물러간 후에든, 서북 인도에 무슬림 주를 만드는 것이 무슬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sup>26</sup>라는 의장 연설로 무슬림 다수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한편으로 1933년에 쯔우다리 라흐마뜨 알리(Choudhary Rahmat Ali)와 케임브리지 대학 무슬림 유학생들이 발행한 『지금 아니면 결코』(*Now or Never*)라는 소책자<sup>27</sup>에 뽀잡, 아프간(Afghan), 까슈미르(Kashmir), 쥘드, 발루치스탄의 글자를 조합한 파키스탄(Pakistan)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끄발의 연설과 파키스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인도통치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물론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갈등 요인이 통치법 개정이나 선거권 확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에 근거한 대의제 도입으로 소수인 무슬림의 입지가 약화되는 한편,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정치적 배려 즉 분리선거권을 요구하면서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를 토대로 두 국가 이론이 등장하여 분단의 핵심 요인이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5 외국 인명의 경우 한글 표기에서는 성(姓)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칸이나 썩의 경우처럼 본 논문에 같은 성의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 경우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

26 H. N. Mitra and N. N. Mitra eds, (1930), *Indian Annual Register, 1930. July - December*, Calcutta: Indian Annual Register Office, p. 338.

27 Chaudhry Rehmat Ali (1933), *Now or Never*, [https://franpritchett.com/00islamlinks/txt\\_rahmatali\\_1933.html](https://franpritchett.com/00islamlinks/txt_rahmatali_1933.html)

## 2.2. 독립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

영국 정부는 1947년 2월에 마운트배튼을 인도 총독으로 임명하고 1948년 6월 30일까지 인도를 독립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1947년 6월 3일에 인도아대륙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개의 국가로 독립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6월 3일의 분단 공식 선언을 분단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선언은 분단의 요인이라기보다는 1940년대에 지속된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 갈등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940년대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 갈등의 증폭은 제2차 세계대전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인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영국이 참전국이므로 인도 역시 당연히 참전국이라고 영국 정부가 선포하자, 국민회의는 이에 항의 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던 주에서 총사퇴를 선언(1939년 10월 22일)했다. 무슬림연맹은 국민회의의 이러한 선언이 나온 후, 국민회의의 사퇴는 무슬림에게 경축할 일이라며 이날을 해방의 날(Deliverance Day)로 선포했다. 이후 무슬림연맹 연차대회(1940년 3월 22-24일)에서는 파키스탄 분리 독립을 역설하는 라호르 선언(Lahore Resolution)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이후 파키스탄 선언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국민회의는 1942년 8월 간디(Mahatma Gandhi)가 주도하는 Quit India(Quit India) 운동에서 '영국은 즉시 인도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했으나, 간디와 네루를 포함한 국민회의 지도부 인사 대부분이 구속됨으로써 국민회의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간디는 1944년 5월 6일에 석방자 진나와의 회담을 제의하여 파키스탄 선언을 원점으로 돌리려 했으나 국민회의가 힌두를 대표하는 단체인지, 간디가 국민회의 대표 자격으로 회담에 참여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 끝에 결국 실패했다. 이처럼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갈등은 제2차 세계대전 발생 이후 더욱 격화되었고 두 단체의 갈등은 종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영국 정부는 와벨 계획안(Wavell Plan, 1945년

6월 5일)을 발표하고, 각 정치단체에서 지명하는 사람들로 총독집행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심라에서 회합(6월 25일)을 개최했다. 이 회합에서 걸림돌이 된 것도 국민회의가 힌두 대표인가 무슬림을 포함하는 대표인가였다. 국민회의는 무슬림인 아자드를 대표로 과견하여 무슬림 대표석을 국민회의에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와벨 총독은 1945~1946년에 중앙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 제정을 위한 단체와 총독행정집행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으로 영국에서는 1945년 7월 26일 총선에서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을 누르고 노동당(Labour Party)이 집권하여 애틀리(Clement Attlee)가 총리가 되었다. 집권당이 된 노동당이 식민지 해체를 추진하면서 인도아대륙의 독립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1946년 3월 24일 뉴델리에 도착한 내각 사절단(Cabinet Mission)이 제시한 인도 독립 방안이 무산되자, 무슬림연맹은 무슬림 직접 행동일(Direct Action Day)일 선포했고, 애틀리 총리는 1947년 2월 마운트배튼을 인도 총독으로 임명하고 1948년 6월 30일까지 인도를 독립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1947년 6월 3일에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의 분단이 공포되고 8월 14-15일에 걸쳐 파키스탄과 인도의 독립 기념행사가 치러짐으로써 인도는 영국 정부의 당초 선언보다 10개월 앞서 독립했다.<sup>28</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0년 초부터 독립 시점까지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정치적 입장의 갈등이 확대되었는데, 정치 세계와 무관한 무슬림과 힌두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이를 정확히 밝힐 통계와 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인도 분단을 그린 문학 작품들에서는 정치권과 무관한 대중들의 갈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쿠시

28 1937년 지방의회 총선 및 총선 이후 분리 독립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박금표(2015), pp. 267-293 참조 요망.

완뜨 썩(Khushwant Singh)의 유명한 분단 소설인 『파키스탄행 열차』(*Train to Pakistan*)는 인도-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마노 마즈라(Mano Majra)라는 가상의 작은 마을에서 힌두, 시크, 무슬림이 갈등 없이 살고 있었으나 분단이 결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난민이 밀려 들어오고 무슬림에 대한 폭행이 시작되면서 마을 회의가 열리자 무슬림인 이맘 박시(Imam Baksh)가 “우리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했는가?”라고 묻는다. 회의를 주도하던 람바르다르(Lambardar)는 “그걸 왜 우리에게 묻는가? 이 마을은 우리 마을이자 당신들의 마을인데”라고 답한다. 그리고 결국 무슬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을 때 형제처럼 살아온 이들과의 작별을 슬퍼하며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을 보면<sup>29</sup> 종교가 달라도 큰 갈등 없이 어울려 살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정치인들은 대립했으나, 일반인들의 삶에서는 대립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정치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선거와 관련된 인도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었을까. 영국 지배 시기 참정권은 보통 선거권이 아니었다. 재산과 학력 그리고 성별에 따른 제한이 있는 제한 선거권이었는데 1919년 통치법으로 참정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3%였고, 1935년 통치법에서 참정권을 가진 사람은 14%였다.<sup>30</sup> 그러므로 정치권의 갈등 즉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갈등이 곧 인도에 살고 있는 힌두와 무슬림 전체의 갈등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분단의 구체적 윤곽은 마운트배튼이 인도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947년 5월, 마운트배튼이 제시한 독립안은 ‘디키 버드 계획’(Dickie Bird Plan)이었다.<sup>31</sup> 디키 버드 계획은 첫째, 하나의 인도로 독립, 둘째, 토후국들

29 Khushwant Singh (1956), *Train to Pakistan*, New York: Grove Press, pp. 117-132.

30 Government of India (n.d.), Government of India Act 1935 “Remark”, third paragraph. <https://www.constitutionofindia.net/historical-constitution/government-of-india-act-1935/>

31 Gurbux Singh Chhabra (2005), *Advance Study in the History of Modern India*, New Delhi: Lotus Press, p. 190; M. Rafique Afzal (1986), “The Governor Generalship Issue

과 지방정부가 각각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이후 해당 정부의 의회에서 인도 제헌의회에 합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계획안을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접한 네루는 인도아대륙이 발칸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sup>32</sup> 발칸화라는 것은 한 지역이 서로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여러 개의 작은 나라나 지역으로 쪼개지는 일이다. 이에 다시 마련된 것이 마운트배튼 계획(Mountbatten Plan)이며 이것이 1947년 6월 3일에 공표된 인도 분단 결정안이다. 마운트배튼 계획은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이 동의하고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1947년 7월 18일 국왕이 승인한 인도 독립법(Indian Independence Act)이 공포되었다. 인도 독립법에는 인도-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국경 조정, 군대와 제정의 분리, 영국 국왕의 인도 황제 지위 종료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경 조정은 래드클리프(Cyril Radcliffe)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맡았는데 래드클리프는 1947년 7월 8일에 인도에 도착하여 8월 13일에 국경을 확정하여 8월 17일에 공포했다.<sup>33</sup> 독립 이후 인도-파키스탄의 종교 공동체, 카스트, 문화, 촌락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국경선을 확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5주였다.

영국 국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한다는 선언을 한 1858년부터 1947년까지 100년 가까운 식민지 지배를 한 영국이지만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떠나는 데 걸린 시간 즉 인도아대륙의 독립과 분단 그리고 국경 확정은 1947년 6월부터 8월까지 겨우 3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다. 인도나 파키스탄 모두 만족할 만한 독립과 분단의 결정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독립으로 무슬림이 종교적 자유를 누릴 인도아대륙의 메카를 꿈꾸었던 사람들 가운데 실망과 좌절을 느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파키스탄 독립 이후

---

and the Quaid-i-Azam, Mountbatten's Version and the Real Story." *South Asia Studies*, 3(1), p. 32 참조.

32 Larry Collins and Dominique Lapierre (1960), *Mountbatten and the Partition of India-March 22-August 15, 1947*,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 85.

33 Hay Jeff (2006), *The Partition of British India*, New York: Chelsea House, pp. 78-84.

영문 일간지 『파키스탄 타임즈』(*Pakistan Times*)와 우르두어 일간지 『임로즈』(*Imroze*) 편집장을 역임한 파이즈(Faiz Ahmad Faiz)는 1947년 8월에 그들이 갈망하던 독립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독립의 새벽」(*Dawn of Freedom*)<sup>34</sup>이라는 우르두어 시를 썼다. “이제 끔찍하게 퍼지는 거짓말을 들어보라/ 빛은 어둠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다/ 우리의 발이 목표에 다다랐다고 한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모습을 보라/ 정말, 우리는 오직 축복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그리움은 불법이다”<sup>35</sup>라는 구절에서 파키스탄의 독립을 바라던 사람들의 절망을 느낄 수 있다. 요컨대 파키스탄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조차도 분단의 참상으로 얼룩진 1947년 8월 14일의 독립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분단은 1947년 8월 15일에 발생했지만, 그러한 분단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은 1947년 6월 3일이다. 6월 3일에 분단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힌두-무슬림 갈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힌두와 무슬림 대중의 종교적 갈등이라기보다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영국식민지 당국의 대의제 도입과 그에 따른 소수 무슬림 정치인들의 불안이 존재했으나 국민회의는 그들의 불안을 공감하거나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두 단체의 갈등이 극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의 책임은 영국식민지 정부, 국민회의, 무슬림연맹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어느 한쪽만을 분단 요인 제공자로 지목해서는 안 될 것이다.

34 이 시는 「독립의 새벽」으로 번역되었지만, 원제는 「Subh-e-Azadi」이므로 직역하면 「독립의 아침」이 더 적당할 것이다.

35 Faiz Ahmad Faiz (1996), Translated by Agha Shahid Ali, “The Dawn of Freedom”, *Annual of Urdu Studies* 11, p. 87.

### 3. 선별적 기억의 정치화

기억은 과거의 사건 혹은 경험을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올릭(Jeffrey K. Olick)이 “기억은 오랫동안 민족주의 열정의 시녀였고, 역사는 기억의 고매한 조연자였다”라고 언급했듯이<sup>36</sup>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기억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경일 제정과 같은 국가의 결정 혹은 강요가 대중의 기억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도에서는 독립 이후 어떠한 날들을 기념하고, 어떤 기억을 정치에 활용했는지를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1. INC 집권기의 기념일

독립 이후 신생 인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독립 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의 통합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목표는 기념일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1947년 8월 15일에 최초의 독립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매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제정되었으며, 1950년 1월 26일에 인도 공화국 헌법을 공포하고 해마다 공화국의 날(Republic Day)<sup>37</sup>로 기념되고 있다. 인도 헌법에 힌디어가 공용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1953년에는 9월 14일을 힌디어의 날(Hindi Day: Hindi Diwas)로, 1975년에는 1월 10일을 세계 힌디어의 날(World Hindi Day: Vishwa Hindi Diwas)로 제정했다. 1954년에는 네루의 생일인 11월 14일을 어린이날(Children's Day)로, 1962년에는 9월 5일을 스승의 날(Guru Purnima)로, 1985년에는 1월 12일을 청년의 날(National Youth Day)로

36 Jeffrey K. Olick (2003), "Introduction," *States of Memory* (ed. by Jeffrey K. Olick),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1.

37 1월 26일은 1930년에 '독립을 선포한 기념일'이었는데,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 되자, 헌법을 1월 26일에 공포하여 '인도가 공화국이 된 날'로 경축하고 있다.

제정했다. 그리고 1958년에는 2월 12일을 생산성의 날(National Productivity Day), 1968년에는 9월 15일을 기술자의 날(Engineers Day), 2012년에는 12월 22일을 수학의 날(National Mathematics Day)로 제정했다.

한편으로 1971년에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를 독립시키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경축하여 12월 16일을 승리의 날(Vijay Diwas)로, 1986년에는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의 생일인 11월 19일을 국가 통합의 날(National Integration Day: Quami Ekta Diwas)로, 라지브 간디(Rajiv Gandhi)가 1991년 5월 21일에 폭탄 테러로 사망하자 이날을 테러 방지의 날(National Anti-Terrorism Day)로 제정했다. 또한 띨락(Bal Gangadhar Tilak, 7월 23일), 간디(10월 2일), 네루(11월 14일), 보세(Subhas Chandra Bose, 1월 23일) 등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생일이 자얀띠(Jayanti, 탄신일)라는 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INC 집권 시기에 제정된 기념일들을 검토해 보면, 독립, 발전, 성장 등의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으며, 분단과 관련된 부정적 키워드의 기념일들은 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도의 정체성이 '피해자 기억'에 근거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네루의 견해,<sup>38</sup> 세속주의 기초, 독립 투쟁 업적 기리기 그리고 국가 발전 등의 시대정신이 기념일 제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BJP 집권과 기념일

BJP는 1980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INC처럼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를 드러내기 어렵다. 그래서 BJP 정부에서는 그들의 정책 기초와 일맥상통하는 정신을 드러냈던 독립운동의 한 장면, 혹은 인물에 대한

38 Jayashree Vivekanandan (2021),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Chronicling the Histories of India: The Politics of Remembrance and Commemoration,'" *India Review* 20(5), pp. 489-490.

기념일 제정과 행사를 추진했다. 이 절에서는 2014년 집권한 BJP 정부에서 어떤 기념일들을 제정했고, 그 기념일들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드러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모디 정부에서 추진한 독립운동 관련 추모 및 기념행사를 검토해 보자. 모디 총리는 집권 첫해에 독립운동가 가운데 같은 지역 출신인 빠델의 생일을 ‘국가 통일의 날’(National Unity Day: Rashtriya Ekta Diwas)로 제정하고 그의 동상 건립에 착수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182미터 높이의 동상 완공하여 헌정했다. 네루와 쌍벽을 이뤘던 빠델은 독립 직후 인도아대륙의 독립 왕국의 인도 편입은 물론 인도 공화국 체제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만 INC 집권기에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모디 정부에서 빠델 기념일을 제정한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일 제정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형성된 것은 기념일 명칭 때문이다. 이미 인디라 간디의 생일인 11월 19일이 ‘국가 통합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와 유사한 명칭의 기념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sup>39</sup> 이는 INC 정부에서 지정한 날의 의미 희석 및 국민의 기억 혼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자유인도(Free India: Azad Hind) 임시정부 수립(1943년 10월 21일) 75주년을 맞이한 2018년 10월 21일에 임시정부를 설립한 보세와 임시정부의 위업을 기리는 행사를 추진했다. 보세는 간디를 추종했으나 그의 비폭력 운동에 회의를 품었고, 독일로 탈출하여 히틀러와 협조하여 인도로 침공하여 영국을 몰아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일본과 손을 잡고 싱가포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1944년 임팔(Imphal) 작전을 개시하고 인도 땅에 임시정부의 깃발을 꽂았으나,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

39 국가 통합의 날의 원어는 뽀자비어로 ‘Quami Ekta’이고, 국가 통일의 날의 원어는 힌디어로 ‘Rashtriya Ekta’이다. ‘National’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어가 서로 다르다. 반면 영어로는 ‘Integration’과 ‘Unity’로 구별하여 표기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Ekta’로 동일하다.

복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와해되었다.<sup>40</sup> 보세의 이러한 전력 때문에 ‘비폭력으로 얻은 독립’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네루 정부에서는 보세와 임시정부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디 정부가 보세와 임시정부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념행사가 임시정부의 위업을 드높이려는 의도보다는 간디와 네루가 완성한 인도의 독립이라는 이미지를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바가뜨 썩(Bhagat Singh) 기념일과 관련된 것이다. 바가뜨 썩은 혁명단체에서 활동했으며 1928년 12월에 영국 경찰 손더스(John Saunders)를 사살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1929년 4월 8일에는 중앙입법부 건물에 폭탄을 투척하여 구속되었으며, 1931년 3월 23일 교수형을 당했다. 독립 이후 보세와 마찬가지로 무장투쟁을 한 바가뜨 썩에 대한 추모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1968년에 국립 순교자 기념관(National Martyrs Memorial)과 동상이 바가뜨 썩 화장 장소에 건립되었고,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때 이 기념관이 훼손되고 순교자들의 동상이 파키스탄군에 의해 철거되자 1973년에 기념관을 재건하는 등 INC 정부에서도 바가뜨 썩에 대한 기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뿌리땀 썩(Pritam Singh)이 ‘1757년 플라시 전투(Battle of Plassey) 250주년, 1857년 항쟁 150주년, 독립 60주년, 바가뜨 썩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2007년에 플라시 전투 기념일 다음으로 가장 덜 기념된 것이 바가뜨 썩 기념이었다’<sup>41</sup>고 말했던 것처럼, 다른 독립운동가의 기념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미미한 기념일에 불과했다. 그런데 모디 총리는 2018년 바가뜨 썩의 111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순교자(Shaheed) 바가뜨 썩의 용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인도인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나는 그의 자

40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금표(2015), pp. 172-187 참조.

41 Pritam Singh (2008), “Why the Story of Bhagat Singh Remains on the Margins?,” South Asian Citizens Web, 2023.01.15. <http://www.sacw.net/article22.html>

안띠를 맞이하여 인도의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인도의 자유에 기여한 그의 영웅적인 행위를 기린다.”라고 썼다.<sup>42</sup> 그리고 매년 바가뜨 썩의 생일인 9월 28일에 바가뜨 썩 자안띠를 경축하고 있다. 2022년에는 연방 내무장관인 샤(Amit Shah)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그의 혁명적 사상과 최고의 희생을 통해 자유 투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독립을 일깨운 순교자 바가뜨 썩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sup>43</sup> 이와 더불어 2022년 바가뜨 썩 탄생 115주년을 기념하여 찬디가르(Chandigarh) 국제공항의 이름을 순교자 바가뜨 썩 국제공항, 찬디가르(Shaheed Bhagat Singh International Airport, Chandigarh)로 개명했다. 연방 재무장관 씨따라만(Nirmala Sitharaman)은 “우리가 우리의 훌륭한 자유 투사들의 얼굴들과 그들의 이름을 공공건물에서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 세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sup>44</sup> 목숨을 바친 영웅을 기념하는 행사와 공공건물 명칭 변경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BJP 정부에서는 순교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사히드(순교자)를 붙이고 있으면서도 바가뜨 썩의 순교의 날인 3월 23일보다는 그의 생일인 9월 28일로 기념일을 변경할 느낌을 주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 BJP 정부에서 제정한 기념일로는 우정의 날(Friendship Day: Maitri Diwas)이 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12월 16일에 독립했는데 그

42 Business Standard (2018), “PM Modi Remembers Shaheed Bhagat Singh on Birth Anniversary,” *Business Standard*, 2023.1.15.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news-ani/pm-modi-remembers-shaheed-bhagat-singh-on-birth-anniversary-118092800154\\_1.html](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news-ani/pm-modi-remembers-shaheed-bhagat-singh-on-birth-anniversary-118092800154_1.html)

43 India Today Web Desk (2020), “Bhagat Singh Birth Anniversary: PM Modi, Amit Shah pay tribute,” *India Today*, 2023.1.15.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bhagat-singh-birth-anniversary-narendra-modi-amit-shah-1726078-2020-09-28>

44 TNN(2022), “Chandigarh International Airport Renamed after Bhagat Singh,” *The Times of India*, 2023.1.15.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andigarh/chandigarh-international-airport-renamed-after-bhagat-singh/articleshow/94519876.cms>

보다 열흘 앞선 12월 6일에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에 모디는 2021년 3월 26일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12월 6일을 양국의 우애를 다지는 우정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고, 방글라데시의 하씨나(Sheikh Hasina) 총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기념일이 제정되었다.<sup>45</sup> 그런데 이날은 1992년 12월 6일에 힌두민족주의자들이 아요드야의 이슬람 사원인 바브리 마스지드(Babri Masjid)를 붕괴시킨 날과 같은 날이다. 또한 이날은 세계 힌두연맹(Vishwa Hindu Parishad)이 이슬람 사원 붕괴를 기념하여 승리의 날(Shaurya Diwas)로 경축하고 있는 날이다. 주지하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다. 그런데 이슬람 사원을 붕괴시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바로 그 날을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날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많은 비난이 일었다. 물론 아르찌스 모한(Archis Mohan)<sup>46</sup>이 언급한 것처럼 모디와 하씨나는 방글라데시의 탄생으로 영국 지배 시기부터 논쟁이 되었던 두 국가 이론에 종말을 고하는 기억을 만들고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방글라데시를 독립시킨 것을 기념하는 승리의 날(Victory Day: Bijoy Dibos)로 12월 16일이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브리 마스지드를 붕괴시킨 날을 우정의 날로 제정한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BJP는 2014년과 2019년 총선에서 바브리 마스지드가 붕괴된 지역인 아요드야에 힌두 사원인 람 만디르(Ram Mandir)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고 2020년 8월 5일에 착공식을 거행했으므로 우정의 날에 대한 모디의 기념일 결정은 ‘무슬림 박해’의 기억을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와의 ‘우정’이라는 기억으로 덮으려는 의도 혹은 양국의 기억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

45 Rajesh Jha (2021), “‘Maitri Diwas’ to Be Celebrated in 18 Countries on 6 December to Commemorate India Bangladesh Friendship,” *DD NEWS*, 2023.8.12. <https://ddnews.gov.in/international/maitri-diwas%E2%80%99-be-celebrated-18-countries-6-december-commemorate-india-bangladesh>

46 Archis Mohan (2021), “‘Remembrance Day’ Opens Old Wounds for Trifling Political Gains,” *Deccan Herald*, 2023.3.15. <https://www.deccanherald.com/india/remembrance-day-opens-old-wounds-for-trifling-political-gains-1022268.html>

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이다. BJP 정부에서는 인도 독립 75주년에 독립 경축 대축제인 ‘아자디 까 아므리트 마호뜨사브’(Azadi Ka Amrit Mahotsav)라는 행사를 2021년 3월 12일에 시작하여 75주 동안 진행한다고 밝히고<sup>47</sup> 2021년 8월 14일을 분단참상추모일로 지정했다. 모디는 “분단의 고통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수백만 명의 우리 자매와 형제들이 실항민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무분별한 증오와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 민족의 투쟁과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8월 14일을 분단참상추모일로 기념할 것이며 그날이 인도인들에게 사회 분열의 독을 제거할 필요성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sup>48</sup> 인도아대륙을 분단하여 파키스탄이 독립한 기념일을 분단참상추모일로 지정한 것은, BJP의 힌두민족주의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며,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여 종교 공동체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기념일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모디의 기념일 제정 이후 BJP 지도층 주요 인사들은 기념일 제정을 환영하면서 네루 방식의 ‘회유 정치’를 비난하고, ‘거대하고 오래된 정당의 실수로 국가가 분단되고 수십만 명이 실항민이 되었다’는 비난으로 일관했다.<sup>49</sup> 또 다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문화부 장관 고빈드 모한(Govind Mohan)은 철도위원회 회장 겸 CEO인 트리빠티(V. K. Tripathi)에게 서신을 보내 분단참상추모일에 기차역 700개 장소에서 전

47 Ministry of Culture, Government of India (2021), “Azadi Ka Amrit Mahotsav,” Government of India, 2022.12.7. <https://amritmahotsav.nic.in/>

48 Special Correspondent (2021), “Narendra Modi Picks August 14 to Recall Partition Trauma,” *The Hindu*, 2023.12.5.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narendra-modi-picks-august-14-to-recall-partition-trauma/article35907824.ece>

49 Abhishek Anand (2023), “BJP Holds Silent Mmarch on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in Delh,” *India Today*, 2023.8.20.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bjp-silent-march-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independence-2421119-2023-08-14>

사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했고, 문화부 차관은 인도 역사 연구 협의회(Indian Council of Historical Research)와 인디라 간디 국립 예술 센터(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가 분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전시회에 보안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6일 대학보조금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ssion) 관계자는 전국 대학에 ‘분단참상추모일’을 기념하는 행사 준비를 요청했다. 대학보조금위원회 의장 꾸마르(M. Jagadesh Kumar)는 “위원회는 인도 국민의 희생과 분단 기간에 겪은 고통에 대한 인식을 높이라는 편지를 각 대학에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또한 국가자원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이하 RSS)의 산토시(BL Santhosh)는 네루주의자들이 책임을 두려워하여 비극을 감추려 했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비극과 수백만 명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sup>50</sup>

이러한 발언들은 모디의 기념일 제정, 분단에 대한 기억 재생, 기억의 정치적 활용의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은 ‘기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로는 8월 14일이라는 날짜가 갖는 의미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8월 15일은 인도가 독립한 경축일인데 그 하루 앞선 14일을 추모일로 정함으로써 독립의 의미보다 분단의 고통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식민지로부터 독립했다는 경축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시점에, 분단과 고통에 대한 기억만 되살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는 독립 경축 행사와 분단참상추모일 행사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됨으로써 오래된 독립 행사보다는 현 정부에서 제정한 분단참상추모일 행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 Nishtha Badgama (2022), “What Is The Debate Surrounding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The Sparrow*, 2022.12.16. <https://thesparrow.news/what-is-the-debate-surrounding-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

둘째로는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의 독립이 곧 인도인의 분단참상이라는 등식을 만드는 것이 8월 14일을 추모일로 지정한 것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분단참상은 인도인 들만 겪은 것이 아니며 그러한 고통은 파키스탄인들도 동시에 겪은 것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분단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2014년 이후 BJP에서 제정한 기념일 혹은 기념행사를 통해 혁명가들을 강조하고, 목숨을 바치는 용기가 강조되는 한편 INC 정부 비판, BJP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맞춘 ‘기억’ 되살리기 혹은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INC 정부와 BJP 정부가 각기 어떤 기억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두 정당 모두 집권기에 자신들의 정치 이념 혹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정 기억을 강조했다. INC 집권기에는 성장, 발전, 통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념일과 기념행사가 추진됨으로써 분단의 고통에 대한 기억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BJP는 앞선 INC 정부와 차별되는 투쟁과 혁명으로 목숨을 잃은 인물에 대한 추모, 분단에 대한 INC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기념행사에 치중했기에 비판의 여지가 많은 ‘기억’의 정치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기념일 제정의 키워드는 달랐지만, 두 정당 모두 역사적 기억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집권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추모: 트라우마의 치유와 재생산

트라우마의 유형을 분류한 바바시(Elyssa Barbash)는<sup>51</sup> 대문자 트라우마

— www.kci.go.kr  
51 Elyssa Barbash (2017), “Different Types of Trauma: Small ‘t’ versus Large ‘T’,”

(Trauma)와 소문자 트라우마(trauma)를 구분하고 소문자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개인 차원의 트라우마이며, 대문자는 자연재해, 강제 집단이주 등과 같은 전반적 범주의 외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 본다면 인도아대륙의 분단을 겪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대문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부 특정인들만 겪은 개인적 차원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당시에 인도아대륙에 살고 있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일어난 트라우마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이 분단 트라우마 치유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4.1. 분단 트라우마와 직면

독립 이후 분단에 관한 서사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침묵’이다. 짜끄라바르티(Pallavi Chakravarty)는 독립 시점에서부터 분단으로 인한 슬픔, 상실, 추모 등의 서사는 소외되고, 자유를 위해 희생한 투쟁, 힘겹게 얻어낸 자유라는 국가주의 서사가 대중의 기억을 지배했다고 분석했다.<sup>52</sup> 파키스탄 출신으로 분단에 대해 연구한 자카리아는 분단에 대한 국가 내러티브가 개인의 기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부장적 국가가 시민들에게 진실에 대한 국가의 버전을 내면화하도록 강요했으며, 국가가 특정 내러티브를 더 많이 반복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기억을 그에 일치시켰으며, 그에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sup>53</sup> 이러한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기억에 대

---

*Psychology Today*, 2023.05.17.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trauma-and-hope/201703/different-types-trauma-small-t-versus-large-t>

52 Chakravarty, P. (2022), "Remembering a Date in the History of the Indian Subcontinent," *Studies in History* 38(2), pp. 162-179, p. 167.

53 Anam Zakaria (2019), p. 42.

한 침묵은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국가주의에 함몰된 결과일 수도 있다. 심리상담에서 트라우마 치료 과정에 ‘직면’(confrontation)의 단계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 회피하고 있던 문제를 드러내어 마주하는 단계다. 가장 고통스러운 외상 기억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둔화시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 노출 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sup>54</sup>

그런 의미에서 BJP 정부가 2021년 8월 14일을 ‘분단참상추모일’로 지정함으로써 트라우마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문화유산트러스트(The Arts and Cultural Heritage Trust) 주도로 암릿사르(Amritsar) 분단 박물관(Partition Museum)이 2017년에 개관했고 2022년에는 델리에도 설립되었는데, 여기서 개최되는 전시회에서는 분단의 기억을 지우거나 축소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은<sup>55</sup> 합리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단참상과 관련된 박물관 개설 및 추모일 제정은 기본적으로 참상을 노출 혹은 직면하게 함으로써 분단 트라우마 치유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4.2. 분단참상추모일 제정과 트라우마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이 침묵보다는 직면으로 이끌어, 분단을 겪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BJP 정부가 추모일 제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 다시 말해서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그러한 의문을 제기

54 박철옥(2015), 「복합외상경험자의 상담을 통한 자기의 회복과정: 근거이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

55 Ted Svensson (2022), “Transcending Antagonism in South Asia: Advancing Agonistic Peace through the Partition Museum,” *Peacebuilding* (ahead-of-print): p. 4.

하는 첫째 이유는 추모일 날짜 선택이다. 텔벗과 씩(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의 연구<sup>56</sup>에 따르면 분단을 전후하여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한 날짜와 지역은 ① 1946년 8월 16-19일: 캘커타(Calcutta),<sup>57</sup> ② 1946년 10월 10일: 노아칼리(Noakhali), ③ 1946년 10월 25일: 비하르(Bihar), ④ 1946년 11월 6일: 가르무끄뎬슈와르(Garhmukteshwar), ⑤ 1947년 3월: 뽀잡, ⑥ 1947년 8월~11월: 독립과 수반된 폭력, ⑦ 1950년 2~3월: 동-서 벵골 등이다. 캘커타 대학살로 칭해지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1945년부터 1947년 사이 인도아대륙에서 일어난 분단 폭동 또는 공동체 폭동에서 캘커타 대학살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4,000명이 사망하고 100,000명이 부상했다고 하며, 다른 기록에서는 10,000~15,000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다.<sup>58</sup> 그러므로 폭동의 규모와 사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분단참상추모일로는 8월 16일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이 공포된 날(1947년 6월 3일)을 분단참상추모일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8월 14일에 분단참상이 가장 극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파키스탄이 독립 경축식을 거행한 날이며 파키스탄의 독립기념일인 8월 14일을 참상추모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BJP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BJP 정부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분단참상 트라우마 치유의 가능성이 있을까? 요컨대 BJP 정부가 분단 트라우마 치유를 목표로 추모일을 제정했다고 해도, 적극적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사례에서는 광범위한 트라우마 역시 치유의 가능성을 볼

56 Talbot Ian and Gurharpal Singh (2009), pp. 68-89.

57 이때 캘커타에서 발생한 공동체 폭동은 캘커타 대학살(The Great Calcutta Killing)로 불린다.

58 Ranabir Samaddar (2017), "Policing a Riot-Torn City: Kolkata, 16-18 August 1946,"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19(1), p. 40.

수 있는데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아일랜드의 경우다. 1949년에 출범한 아일랜드 공화국의 경우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대립과 무장투쟁이 있었고, 2005년에 이르러 무장투쟁이 중단되고 평화를 이룬 후에, 갈등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북아일랜드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룹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크로스 커뮤니티(Cross Community)를 구성하여 기념과 추모 프로젝트 네트워크, 이야기 나눔(storytelling program), 보이저(Voyager) 프로젝트, 반성의 날, 추모박물관, 인정 등의 6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트라우마 치료에 성과를 거두었다는<sup>59</sup> 분석 결과가 있다.

이러한 분단과 관련된 트라우마 연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주변인들 그리고 후손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반성을 통해 화해를 촉진할 때 작은 희망이라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인도의 분단 트라우마를 검토했을 때 INC 집권기에는 분단 트라우마 자체를 외면했기 때문에 치유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BJP 정부의 분단참상추모일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반성과 화해 촉진의 의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부팔리아는 그의 연구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분단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 하러 다 잊힌 과거를 기억해 내려 합니까?”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분단에서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없었다. 실제로 모든 가족은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인도-파키스탄 분단을 알 수 있

59 전우택 외(2016), 『통일 준비를 위한 “사회 치유(Social Healing)” 연구』, 한국연구재단 결과보고서, p. 11.

는가? 분단으로 인해 생산된 문헌과 기억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 붙였다.<sup>60</sup> 요컨대 인도-파키스탄의 분단으로 인한 참상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던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상호 반성과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면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만을 비난하는 것 역시 모디가 말한 수백만 명이 희생민이 되고 목숨을 잃은 ‘기억’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분열의 독’을 제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분단의 트라우마 치료와 분열의 독을 제거하는 길은 ‘화해의 촉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칠레와 남아프리카의 갈등에 관한 연구서의 서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화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우분투(ubuntu) 즉 ‘타인의 인간성에 대한 인식’(recognition of the humanity of the other)이 프로세스의 패스워드였던 칠레와 남아프리카의 사례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화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피해자 개개인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래된 증오는 지속될 것이며 ... 진실 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은 위원회가 의도한 대로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sup>61</sup>

사실 화해의 의미, 치유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60 우르와쉬 부팔리아(2009), p. 37.

61 González Enríquez Carmen Alexandra Barahona de Brito and Aguilar Fernández Paloma (2001), *The Politics of Memory: Transitional J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7.

있는 추모일을 만들고 쌍방의 노력이 있다 해도 긍정적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런데 ‘파키스탄을 요구해서’ 분단되었으니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모두 파키스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사사로운 문제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 ‘너’ 혹은 ‘너 때문에’를 두면 해결되기 어렵고, ‘나’를 중심에 둘 때 그나마 화해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다. INC 소속 상원의원인 라메시(Jairam Ramesh)는 “분단참상추모일은 당파적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총리의 현재 정치 싸움에서 탄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BJP 정부의 인적자원부 장관인 뿌라단(Dharmendra Pradhan)은 국가의 분단을 합의했을 때 수백만 명의 목숨과 명예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들이, 비극이 일어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보복성 발언을 했다.<sup>62</sup> 아난드(Abhishek Anand)가 2023년 분단참상추모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BJP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침묵 도보 행사가 델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섬유부 장관(Minister of Textiles)인 고얄(Piyush Goyal)은 “이 프로그램은 BJP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BJP의 델리 지부장인 사즈데바(Virendra Sachdeva)는 “국민 모두 어떻게, 왜 분단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분단은 국민회의(기사에 Congress로 표현)의 실수로 발생한 것”<sup>63</sup>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전을 검토할 때, “분단의 참상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고, 정당한 목표를 가진다면 새로운 기념일이 어느 정도 치료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인도-파키스탄

62 TNN (2022/08/15), “BJP & Congress Cross Swords on Horrors of Partition, Genesis of 1947 Tragedy,” *The Times of India*, 2022.12.20.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93562916.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93562916.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63 Abhishek Anand (2023), “BJP Holds Silent March on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in Delhi,” *India Today*, 2023.9.3.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bjp-silent-march-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independence-2421119-2023-08-14>

의 적대감을 각인시키려는 것이라면 외교 정책은 물론 국내 정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sup>64</sup>이라는 사란(Shyam Saran)의 논평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국 BJP 인사들이 분단참상추모일과 관련된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립 주도 세력의 실수라는 비난과 INC에 대한 정치적 비방으로 일관한다면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의 진정성은 더욱 약해지고, 2021년 이후 벌어지는 지방의회 선거와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단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BJP의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이다. 특히 BJP 이전에 장기적으로 집권했던 INC가 분단참상 기억을 외면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분단참상을 추모하는 기념일 제정은 분단참상 트라우마 치유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파키스탄 분단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일방적인 비난이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트라우마 치유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때문’ 혹은 ‘INC 때문’이라는 비방을 접어두고 적어도 분단의 참상을 겪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하는 쌍방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기억과 추모는 치유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헤집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트라우마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인도-파키스탄 분단 사건, 기억의 정치적 활용, BJP의 분단참

64 Shyam Saran(2021), “The Horrors of Partition Must Be Remembered — But for the Right Reasons, *The Indian Express*, 2022.8.12. <https://indianexpress.com/article/opinion/columns/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pm-narendra-modi-7458706/>

상추모일 제정과 분단 트라우마 치유 가능성을 검토했다. 분단 직후의 담론과 BJP의 담론 모두 힌두-무슬림의 관계 악화로 분단이 발생했으며, 분단이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무슬림연맹의 파키스탄 요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이 아니라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것이며, 그러한 갈등에 대의제 도입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분단은, 영국 정부의 선거제 도입, 대의제로 소수인 무슬림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우려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한 무슬림연맹 그리고 무슬림 정치인들의 우려를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국민회의가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INC 집권 시기에는 집권당의 정체성인 세속주의 기초를 근간으로 독립 투쟁의 업적을 기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기념일들이 제정되었으며, 분단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념일들은 제정되지 않았다. BJP 집권기에는 INC 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념일을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특히 혁명 정신을 드높이거나 무력을 동반한 독립 투쟁가를 기림으로써 힌두민족주의 정당으로서의 BJP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편, INC 정부에서 제정한 기념일과 명칭이 유사한 기념일을 제정하여 비난을 샀고, 진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분단참상추모일을 제정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INC와 BJP가 제정한 기념일 키워드는 다르지만, 역사적 기억의 정치화를 통해 각 집권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독립 이후 장기적으로 집권했던 INC는 분단참상 기억을 외면했으나 BJP가 분단참상을 공개적으로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했다. 분단참상추모일의 날짜 선택에서 분단참상의 가해자는 파키스탄이고 피해자는 인도라는 ‘탓하기’ 태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참상을 겪은 인도-파키스탄 쌍방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음으로써 분단참상추모일 제정은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보다는 오래된 상처를 악화시켜, 종교 공동체주의 혹은 인도와 파키스

탄의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다.

## 참고문헌

### 1. 자료

- Azad, Abulkalam (1959), *India Wins Freedom: An Autobiographical Narrative*, Bombay: Orient Longmans.
- Faiz, Faiz Ahmad (1996), Translated by Agha Shahid Ali, 「The Dawn of Freedom」, *Annual of Urdu Studies* 11, p. 87.
- Government of India (n.d.), Government of India Act 1935, <https://www.constitutionofindia.net/historical-constitution/government-of-india-act-1935/>
- Ministry of Culture, Government of India (2021), “Azadi Ka Amrit Mahotsav,” 2022. 12.07. <https://amritmahotsav.nic.in/>
- Mitra, H. N. and N. N. Mitra eds. (1930), *Indian Annual Register, 1930. July - December*, Calcutta: Indian Annual Register Office.
- Singh, Khushwant (1956), *Train to Pakistan*, New York: Grove Press.

### 2. 논저

- 공영수(2021), 「1947년 인도 분단 속 뺨잡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선교적 함의」, 『ACTS 신학저널』 49, pp. 51-81.
- 김우조(2005), 「기판잘리 슈리의 그 해의 우리 도시에 나타난 힌두-무슬림 갈등의 심리적 고착화의 확대」, 『남아시아연구』 11(1), pp. 59-96.
- 라제쉬(2003), 「식민 이후 한국과 인도의 분단 과정의 문학적 형상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즈 헤먼트(2002), 「한국과 인도의 분단 소설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표(2015), 『간디와 맞선 사람들』, 그린비.
- 박철욱(2015), 「복합외상경험자의 상담을 통한 자기의 회복과정: 근거이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덕순, Anshuman Tomar (2021), 「인도 분단 소설에 나타난 비극의 양상 연구: 쿠쉬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8, pp. 139-172.
- 우르와쉬 부팔리아(2009), 이광수 역, 『침묵의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 부산: 산지니.
- 이광수(2007), 「1947년 인도아대륙 분단과 ‘파키스탄 난민’의 정체성 변화」, 『역사비평』 81, pp. 338-363.

- 이은구(2023), 「모한 라게쉬(Mohan Rakesh)의 분단소설 연구」, 『남아시아연구』 28(4), pp. 29-52.
- 전우택·김유정·조주관·박명림·백문임·이은(2016), 『통일 준비를 위한 “사회 치유(Social Healing)” 연구』, 한국연구재단 결과보고서, p. 11.
- 조길태(2009), 『인도와 파키스탄』, 민음사.
- 한재환(2014), 「맵시 시드와의 『인도의 분단』에 나타난 영국 제국주의 비판: 민족, 종교, 여성」, 『영미문화』 14(2), pp. 287-310.
- 홍현애(2022), 『『인도의 분단』(Cracking India): 여성 서발턴의 해방의 가능성』, 『젠더와 사회』 33, pp. 5-28.
- Afzal, M. Rafique (1986), “The Governor Generalship Issue and the Quaid-i-Azam, Mountbatten’s Version and the Real Story,” *South Asia Studies* 3(1), pp. 29-42.
- Ali, Chaudhry Rehmat (1933), *Now or Never*. [https://franpritchett.com/00islamlinks/txt\\_rahmatali\\_1933.html](https://franpritchett.com/00islamlinks/txt_rahmatali_1933.html)
- Anand, Abhishek (2023), “BJP Holds Silent March on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in Delh,” *India Today*, 2023.8.20.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bjp-silent-march-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independence-2421119-2023-08-14>
- Badgama, Nishtha (2022), “What Is The Debate Surrounding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The Sparrow*, 2022.12.16. <https://thesparrow.news/what-is-the-debate-surrounding-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
- Barbash, Elyssa (2017), “Different Types of Trauma: Small ‘t’ versus Large ‘T,’” *Psychology Today*, 2023.5.17.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trauma-and-hope/201703/different-types-trauma-small-t-versus-large-t>
- Brito, González Enríquez Carmen Alexandra Barahona and Aguilar Fernández Paloma (2001), *The Politics of Memory: Transitional J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siness Standard (2018), “PM Modi Remembers Shaheed Bhagat Singh on Birth Anniversary,” *Business Standard*, 2023.1.15.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news-ani/pm-modi-remembers-shaheed-bhagat-singh-on-birth-anniversary-118092800154\\_1.html](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news-ani/pm-modi-remembers-shaheed-bhagat-singh-on-birth-anniversary-118092800154_1.html)
- Chakravarty, Pallavi (2022), “Remembering a Date in the History of the Indian Subcontinent,” *Studies in History* 38(2), pp. 162-179.
- Chhabra, Gurbux Singh (2005), *Advance Study in the History of Modern India*, New Delhi: Lotus Press.
- Collins, Larry and Dominique Lapierre (1960), *Mountbatten and the Partition of India-March 22-August 15, 1947*,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 (2009),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dia Today Web Desk (2020), "Bhagat Singh Birth Anniversary: PM Modi, Amit Shah Pay Tribute," *India Today*, 2023.01.15.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bhagat-singh-birth-anniversary-narendra-modi-amit-shah-1726078-2020-09-28>
- Jeff, Hay (2006), *The Partition of British India*, New York: Chelsea House.
- Jha, Rajesh (2021), "'Maitri Diwas' to Be Celebrated in 18 Countries on 6 December to Commemorate India Bangladesh Friendship," *DD NEWS*, 2023.8.12. <https://ddnews.gov.in/international/maitri-diwas%E2%80%99-be-celebrated-18-countries-6-december-commemorate-india-bangladesh>
- Joh, Terraine (1980), *The Life and Times of Lord Mountbatten*, London: Arrow Book.
- Khan, Yasmin (2007), *The Great Partition: The Making of India and Pakistan*, Delhi: Penguin.
- Mohan, Archis (2021), "'Remembrance Day' Opens Old Wounds for Trifling Political Gains," *Deccan Herald*, 2023.3.15. <https://www.deccanherald.com/india/remembrance-day-opens-old-wounds-for-trifling-political-gains-1022268.html>
- Olick, Jeffrey K. (ed.) (2003), *States of Memo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andey, Gyanendra (2003), *Remembering Partition: Violence, Nationalism and History in India*, New Delh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addar, Ranabir (2017), "Policing a Riot-Torn City: Kolkata, 16-18 August 1946,"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19(1), pp. 39-60.
- Saran, Shyam (2021), "The horrors of Partition Must Bbe Remembered — But for the Right Reasons," *The Indian Express*, 2022.08.12. <https://indianexpress.com/article/opinion/columns/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pm-narendra-modi-7458706/>
- Singh, Pritam (2008), "Why the Story of Bhagat Singh Remains on the Margins?," South Asian Citizens Web, 2023.1.15. <http://www.sacw.net/article22.html>
- Special Correspondent (2021), "Narendra Modi Picks August 14 to Recall Partition Trauma," *The Hindu*, 2023.12.5.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partition-horrors-remembrance-day-narendra-modi-picks-august-14-to-recall-partition-trauma/article35907824.ece>
- Suvir, Kaul (ed.) (2001), *The Partitions of Memory: The Afterlife of the Division of India*, Delhi: Permanent Black.
- Svensson, Ted (2022), "Transcending Antagonism in South Asia: Advancing Agonistic Peace through the Partition Museum," *Peacebuilding* ahead-of-print, pp. 1-17.
- TNN (2022), "BJP & Congress Cross Swords on Horrors of Partition, Genesis of 1947 Tragedy," *The Times of India*, 2022.12.20.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93562916.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93562916.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 TNN(2022), "Chandigarh International Airport Renamed after Bhagat Singh," *The Times of India*, 2023.01.15.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andigarh/chandigarh-international-airport-renamed-after-bhagat-singh/articleshow/94519876.cms>
- Virdee, Pippa (2022), "Histories and Memories in the Digital age of Partition Studies," *The Oral History Review* 49(2), pp. 328-345.
- Vivekanandan, Jayashree (2021),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Chronicling the Histories of India: The Politics of Remembrance and Commemoration'," *India Review* 20(5), pp. 483-496.
- Zakaria, Anam (2019) *1971: A People's History from Bangladesh, Pakistan and India*, Gurgaon: Vintage.
- Zamindar, Vazira Fazila-Yacoobali (2007), *The Long Partition and the Making of Modern South Asia: Refugees Boundaries Histories*, New Delhi: Penguin Viking.

원고 접수일: 2023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9일

## ABSTRACT

# Memories of India-Pakistan Partition and Hindu Nationalism

Park, Kyum Pyo\*

Lee, Dongw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use of the memory of the India-Pakistan partition,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and the possibility of healing trauma resulting from the parti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s the partition as a historical event, examines the anniversaries and commemorative events established by the INC and BJP, and assesses 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on the healing of trauma resulting from the partition.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literature analysis, and it reviews related data, existing studies, and analyzes relevant news.

Both the discourse immediately after the partition and the BJP's discourse point to the Hindu-Muslim conflict and the Muslim League's demand for Pakistan as factors in the partition. However, the primary factor is not the Hindu-Muslim conflict but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and the Muslim League during the time leading up to the partition. The introduction of a representative system played a major role in the conflict between two groups. Therefore, the partition of India-Pakistan

---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H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as caused by a collaboration between the British colonial government which introduced a representative system, the Muslim League which was concerned about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Muslims as a minority, and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which failed to understand or embrace the concerns of the Muslim League.

During the INC period, anniversaries were established with the main keywords of independence struggle and national development. During the BJP's years in power, its identity as a Hindu nationalist party was revealed by establishing anniversaries centered on figures or historical events that were not noticed by the INC government and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Although the keywords of the establishment of anniversaries are different, it is the same that each ruling party has revealed its identity through the politicization of historical memory.

The INC ignored the memory of the tragedy of partition, but the BJP established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This could be a turning point in healing trauma resulting from the tragedy of partition. Trauma at the national level must be premised on reflection and agreement between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If it is a memorial day that aims to sincerely heal the trauma of partition, it should be premised on communication between India and Pakistan, both of which suffered the devastation, rather than placing blame on Pakistan or the INC. It should be noted that establishing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without such a careful premise may exacerbate old wounds and promote conflict instead of fostering healing.

**Keywords** Anniversaries, BJP, Healing, INC, Memories, Partition,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Wounds

